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3.(화) 배포 2026. 11. 3.(화)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대비 전력산업 대응 방안 모색… '전력산업 선진화 포럼' 개최

- 11월 2일 제주서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위한 전력산업 선진화 포럼」 개최 -
- AI 기반 전력계통 운영, 계통 수용능력 제고, VPP 사업 고도화 등 논의 -

전력거래소(이사장 김성진)는 11월 2일(월) 제주 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 대한전기학회(회장 박종배)와 한국자원경제학회(회장 조홍종)의 공동 주관으로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위한 전력산업 선진화 포럼」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전력거래소(이사장 김성진),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회장 구자균)의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참석자와 함께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박종배 대한전기학회 회장,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재원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부회장 등 주요 인사와 전력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앞두고 전력산업 전반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 운영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계통 수용능력 확보와 자원 운영의 유연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전력계통 운영기술의 고도화와 새로운 전력자원의 활용 등 전력산업의 선진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먼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위한 전력산업의 대응 방향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력계통 운영기술 AI 전환(AI-EMS) (최영민 전력거래소 IT혁신실장) ▲전력계통 수용능력의 재정의: 계통제약, 조건부 접속과 자원 유연성 (신훈영 홍익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Q-VPP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VPP 가치 극대화 전략 (김은철 전력거래소

VPP사업팀장) 순으로 4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박종배 대한전기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대비한 전력산업의 대응 방향과 주요 과제와 관련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박종배 회장을 비롯하여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장재원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부회장 ▲노재형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정구형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신산업연구센터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김선규 기후솔루션 연구원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관한 대한전기학회 박종배 회장은 “전력계통 운영체계의 고도화, 유연성 자원과 계통 안정화 인프라의 확충, 전력시장과 전력망 이용 제도의 혁신 등 세 가지 방향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한국자원경제학회 조홍종 회장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시장과 제도, 그리고 올바른 가격 신호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김성진 이사장 역시 “재생에너지 100GW라는 국가적 과제 적기 달성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시장·계통 운영 효율화 및 제도 혁신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붙 임] 전력산업 선진화 포럼 행사 사진 4부. 끝.

총괄 부서	ESG경영처 ESG홍보협력팀	책임자	팀장	정선호 (061-330-8200)
		담당자	차장	박상혁 (061-330-8201)

담당 부서	분산e사업처 분산에너지SG팀	책임자	팀장	김규동 (061-330-8940)
		담당자	차장	전성은 (061-330-8942)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진·이미지·제3자 저작물 등이 포함된 경우 별도 권리관계에 따릅니다.

KPX 전력거래소 KOREA POWER EXCHANGE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